

1950년대 북한 “문제”소설에 나타난 농민 형상 연구

- 「나비」와 「봄보리」를 중심으로 -

김 미*

차 례

- | | |
|--------------------------|------------------------------------|
| I. 들어가면서 | III. 사회주의시대 농민의 이중성격에
대한 사실적 묘사 |
| II. 1950년대 북한 “문제”소설의 산생 | - 소설 「나비」, 「봄보리」를 중심으로 |
| | IV. 나오면서 |

국문초록

본고에서는 1950년대 북한 문단에서 이른바 “문제”소설로 비평받고 문학사에서 외면당한 소설에 나타난 농민 형상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문제”소설들이 어떤 문학적 가치가 있는지, 북한 소설사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알아보았다. 북한문학은 그 형성초기부터 당의 노선과 문예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기는 하였으나 완전히 속박된 것은 아니었다. 적어도 1967년 “주체문학”이 성립되기 전까지는 지속적인 몸부림이 있었으

* 중국 광둥외어외무대학 한국어학과 교수

며 문학의 자율성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었다. “문제”소설에 나타난 농민 형상은 북한문학 내부에 어느 정도 문학본연의 흐름이 나타났다는 사실을 웅변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이는 전반 해방 후 북한문학을 천편 일률적으로 주체문학으로 규정짓는 편견에 대한 유력한 반박이 될 수 있다.

주제어 : “문제”소설, “문제성”, 도식주의, 사상해방운동, 농민 형상

I. 들어가면서

우리는 해방 후 북한 문학사를 바라봄에 있어서 냉전논리를 극복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해방 후 북한의 사회현실을 올바르게 감안해야 한다. 해방 후 북한 문학은 당의 문예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변화 발전하였다. 문학창작도 역시 문예정책의 영향을 깊게 받았는바 이런 작품들을 연구함에 있어서 반드시 역사주의적 입장과 객관적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 특히 이데올로기거나 정치적인 문제의 개입을 극복하고 본연의 문학작품으로서의 가치와 지위를 탐구할 것이 요청된다.

북한문학사에서 전후로부터 1959년에 이르기까지의 시기는 전쟁 중에 소련으로부터 들어온 무갈등론에 대한 비판 이론에 영향을 받기 시작하여 그 이전의 문학에서 범했던 도식주의적 경향을 여러 차례의 논의를 거쳐 조금씩 극복하던 시기이다.

사회주의 원조인 구소련에서는 스탈린 서거(1953. 3. 5)이후 구소련 문예계 내에서 개념화, 도식화에 대한 비판이 시작되면서 과거의 정치적 속박에서 벗어나려는 사상해방의 조류가 형성되었다. 특히 1956년 2월 소련 공산당 제20차 대표대회에서 흐루시초프에 의한 스탈린 비판이 이루어지면서 전반 구소련 사회는 해동의 시기에 처하였다. 이런 사회역사

적인 여건 속에서 에렌부르크의 「해동」, 솔로호브의 「인간의 운명」, 오웨츠킨의 농촌오체르크 등을 선두로 과거에는 감히 말하지 못했거나 접촉할 수 없었던 문제들, 이를테면 “개인숭배”가 초래한 비극적 현상, 전쟁이 한 인간과 가정에 가져다준 불행, 전쟁의 진실한 장면, 농업전선에 존재하는 엄중한 낙후 현상들을 그대로 반영하는 작품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었으며 그로 인한 열띤 논쟁도 벌어졌다.

소공 제20차 대표대회에서의 스탈린주의에 대한 비판은 모든 사회주의체제 국가에 영향을 주었는바 북한도 그 영향 하에 1956년 10월, 조선 제2차 작가대표대회를 열었다. 조선 제2차 작가대표대회는 그 이후 비록 단기적이지만 문학의 상대적인 자율성을 확보함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일으켰다. 구소련의 무갈등론에 대한 비판에 크게 힘입어 도식주의의 극복에 관한 논의가 여러 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는데 제2차 작가대회 이후에 소위 “문제성”을 띤 작품이 적지 않게 출현하였다. 예를 들면 전재경의 「나비」, 박태민의 「방임하지 말아야 한다」, 김순석의 시집 「황금의 땅」 등이 있다. 이런 작품들의 출현은 북한 문학 내부에 어느 정도 문학본연의 흐름이 나타났다는 사실을 웅변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이는 전반 해방 후 북한 문학을 천편일률적으로 주체문학으로 규정짓는 부당한 결론에 대한 유력한 반박이 될 수 있다.

본고에서 말하는 “문제”소설이란 20세기 50~60년대 사회주의체제 국가 내에서 지배적인 이데올로기에 부합되지 않거나 혹은 거기에 대치되는 경향으로 흘러서 문제시된 작품을 가리킨다.

본고에서는 1950년대 북한 문단에서 이른바 “문제”소설로 비평받고 문학사에서 외면당한 전재경의 「나비」(『조선문학』, 1956. 11)와 강형구의 「봄보리」(『조선문학』, 1957. 5)에 대하여 살펴봄으로써, 이 소설들이 어떤 문학적 가치가 있는지, 북한 소설사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II. 1950년대 북한 “문제”소설의 산생

북한에서 1950년대 후반기를 중심으로 하여 적지 않은 “문제”소설이 창작되었던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그것은 같은 시기에 같은 사회주의체제 국가였던 구소련이거나 중국에서 일어났던 “무갈등론”과 개념화, 도식화에 대한 비판 및 그에 따른 문학창작 등의 영향과 무관하지 않다. 다시 말하면 “문제”소설이 출현할 수 있었던 시대적 배경은 구소련과 중국의 영향이라는 외부적 요인과 북한의 1950년대 사회문화적 상황이라는 내부적 요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구소련의 경우를 놓고 보면, 1950년대 초기로부터 문학에서의 “무갈등론”과 개념화, 도식화의 경향에 대한 비판이 시작되면서 현실생활에 실제 존재하는 모순과 갈등을 대담하게 반영하는 작품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특히 전후 몇 년간 계속된 자연재해와 낙후한 집단농장 관리방법은 구소련 농업으로 하여금 여전히 낙후한 상태에 머물게 하였다. 그리하여 이 시기 오웨츠긴, 트로예쁠스끼, 깔리닌, 자리긴, 제쓰쨬브 등 산문가들은 “생활에 적극적으로 간섭하자”라는 구호아래 구소련 농업의 낙후한 측면을 대담하게 적발하는 적지 않은 오체르크 등을 발표하여 한때 침체상태에 있던 구소련 문단에 활기를 띠게 하였다.

1952년 9월 『신세계』잡지에는 오웨츠긴의 새로운 농촌에 대한 오체르크 「구역위원회의 일상생활」이 실렸다. 평론계에서는 오웨츠긴의 이 오체르크를 전후 구소련문학의 “봄에 날아온 첫 제비”라고 찬양하였다. 오체르크는 “무갈등론”이 성행하던 시기에는 볼 수 없던 그런 생신한 기백으로 농촌에 존재하는 친구사상간의 모순과 곤란을 보여주었으며 전후 농촌생활의 넓은 화폭을 펼쳐놓았다. 오웨츠긴의 뒤를 이어 많은 신진작가들이 “적극적으로 생활에 간섭하자”라는 구호를 들고 문단에 나섰다.

소공 제20차 대표대회에서 채택한 “개인숭배와 그 후과에 대하여”라는 새로운 시책이 실시되면서 개인숭배와 그의 엄중한 후과를 숙청하는

운동이 활발해졌는바, 이는 구소련 국내의 문학생활로 하여금 활기를 띠게 하였다. “개인숭배”의 속박에서 벗어난 구소련 문학계에서는 인간과 인간의 운명, 인간이 공동으로 지켜야 할 도덕, 개념 등을 선양하는 작품들이 많이 나타났다. 솔로호브의 「인간의 운명」과 같은 작품들은 인간의 운명, 인간의 행복 등 문제들을 주제로 하고 있다.

솔로호브의 「인간의 운명」(1956)은 조국전쟁을 소재로 한 소설로서, 비단 인물의 민주주의화뿐만 아니라 소비에트 성격의 본질적인 특점을 밝히며 전쟁에 대하여 전면적인 예술적 사고를 하는 등 여러 면에서 새로운 길을 개척한 작품이다. 지난 시기 조국전쟁을 소재로 한 작품들은 그 대다수가 전쟁의 장엄하며 숭고한 일면의 묘사에만 치중하고 비극적인 일면을 홀시하였으며, 인물묘사에 있어서도 도식화된 애국주의 및 영웅주의의 특성묘사에만 치중하고 소비에트 영웅주의의 본질적인 특성을 보여주는 성격창조에 주의를 돌리지 못하였다. 주인공 쏘콜로브는 전쟁가운데서 이렇다 할만한 공훈을 세운 영웅은 아니나 무수한 시련과 타격을 받으면서도 소비에트 인간으로서의 본색을 잃지 않은 그런 인간이다. 그에게는 이따금 일반 인간들에게 있을 수 있는 그런 소극적인 감정이 표현되기는 하나 바로 이것으로 하여 그의 성격은 생동하고 원만하다. 솔로호브는 현실을 떠난 “이상화된 영웅”이 아니라 안드레이 쏘콜로브처럼 생활에서 흔히 보는 그런 보통 인간의 영웅적 성격을 창조하였다. 솔로호브의 소설 「인간의 운명」에는 일부 감상적인 정서가 없는 것은 아니나, 보통 러시아 병사의 백절불굴의 의지와 영웅주의 그리고 그의 넓은 도량을 보여주는 데 꼭 성공한 작품이다.¹⁾

구소련의 “문제”소설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작품은 파스테르나크의 「지바고 의사」이다. 사상해방의 영향 하에서 작자가 오랫동안 구상하고 써낸 이 소설은 1956년에 『신세계』잡지에 투고했으나 발표되지 못하였다. 1957년에 이탈리아에서 출판되었는데 이후 15개 나라의

1) 정판룡·허호일·서일권, 『제2차세계대전후의 세계문학』, 연변인민출판사, 1987.

문자로 번역되었다. 소설은 “10월 혁명”이 일어나기 20년 전으로부터 “10월 혁명”이 일어난 후의 10년에 이르기까지를 배경으로 하였는데, 주인공 지바고 의사의 혁명후의 현실에 대한 불만을 쓰고 있다. 지바고 의사는 반혁명적인 백군의 잔인함을 염오할 뿐만 아니라 인테리들이 혁명적 폭력을 휘두르는 것도 찬성하지 않는다. 소설은 지바고 의사의 형상을 통하여 사회주의사회의 현실모순을 여실히 반영하고 있다.

작가 에렌부르크도 「해동」(1954)에서 구소련 현실생활에 존재하는 각종 모순갈등을 더욱 깊이 보여주었다. 작품에서는 관료주의자 유리브레브의 철직이 그 공장으로 하여금 “해동”시기에 들어섰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특히 “해동”이라는 소설의 제목이 시대의 큰 흐름을 전면적이고도 형상적으로 개괄하였다 하여 “해동문학”이라는 학술용어가 생겨났다.²⁾ 탐색을 주요한 특징으로 하는 “해동문학”은 “과거를 청산하고 지나간 잘못을 고치며 될 수 있는 한 문학이 범한 과실을 미봉하고…이 과정은 국민의 책임감을 회복하는 것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문화(특히 미학)를 회복해야 하는 필요성을 인식할 것도 포함된다.”는 것을 주요특징으로 하고 있다.³⁾

이처럼 구소련 문학의 발전 단계에서 1950년대로부터 1960년대에 이르는 시기는 하나의 획기적인 시기였다. 특히 1956년에 열린 소련 공산당 제20차 대회에서 취한 일부 개혁조치는 인민들의 사상을 해방하고 이전시기에 정치, 경제, 문화 등 영역에 존재하던 일부 폐단들을 시정하는 데 유리하였다. 문학은 이런 사회문화적인 상황에 힘입어 해동기를 맞이하였다.

당시 사회주의체제국가들에서 사상해방의 새로운 분위기를 보여주었던 국제적인 정세와 문학 동태는 북한의 사회생활에 큰 영향을 주었다. 특히 전후 북한 문학에 대한 구소련문학의 영향은 북한의 표현을 빌면

2) 로성화, 『세계문학사』 제5권, 요녕민족출판사, 2002, 29쪽.

3) 장승용, 『세계문학사강』, 복단대학출판사, 2003, 268쪽.

“소비에트 문학은 우리 문학 발전의 등대이며 지표로 되고 있는 것이다.”⁴⁾

1952년 10월에 열린 소련 공산당 제19차 대회의 보고를 접한 것은 1954년부터 북한 문단에서 논의되기 시작한 “무갈등론”에 대한 비평의 계기가 되었다. 또한 1954년 12월 제2차 소비에트 연맹 작가대표대회에 참석하였던 조선작가대표단의 귀환보고대회가 1955년 2월 9일에 소집되었다. 대회에서는 새로운 논의를 마련한 소련 작가대표대회의 정신에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금후 문학예술의 보다 높은 개화발전을 위하여 총결기할 것을 요구하였다.

1956년 3월에는 소련 공산당 제20차 대회의 영향으로 북한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렸고, 대회에서는 흐루시초프가 스탈린을 비판한 비밀연설의 번역청취가 있었다. 4월에 있을 북한노동당 제3차 대회 직전에 열린 이 회의에서는 당내에 약간의 개인숭배현상이 있었음을 인정하였다.⁵⁾

북한노동당 제3차 대회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상의 개방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으며 이로 인해 토론의 다양성이 허용되는 관용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그 후 8월 전원회의에서는 자유롭고도 공개적인 토론이 더욱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과학, 문학, 예술 분야에서 사업하는 일꾼들은 더욱 대담하게 자기들의 연구 및 창작 결과를 발표하며 자유로이 의견을 교환하며 활발한 공개적 토론을 전개함으로써 우리의 과학문화의 발전을 촉진시켜야 한다.”⁶⁾고 지적하였다. 구소련의 이런 사상문화 영향 하에서 북한 문단은 1950년대 후반기 단기적으로나마 “문제”소설이 활발하게 창작되었다.

4) 「제2차전연맹 쏘베트작가대회에 참가하였던 조선작가대표단의 귀환보고대회」,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5.3.

5) 이종석, 『새로 쓴 현대북한의 이해』, 역사비평사, 1988, 420쪽.

6) 「전후 조선문학의 현상대와 전망」—제2차 조선작가대회에서 한 한설야 위원장의 보고—, 『제2차조선작가대회문헌집』,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6, 8쪽.

북한의 전후문학은 사회주의국가건설에 대한 높은 정치적 열정으로 사회운동을 정시하고 사회의 중대한 변혁을 반영하면서 강한 정치적 색채를 표출시키고 있었다. 또한 역사적인 승리자의 자세에서 현실을 긍정적으로 구가하면서 그러한 승리를 이룩하는 데 이바지된 혁명적 정신과 영웅적 성격을 열렬히 찬미하고 있으며, 이상주의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하면서 사회변혁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북한의 전후문학은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의 길을 따라 나아갔다.

그런데 북한의 전후문학에서 주목되는 것은 1950년대 중반부터 1960년대 초반까지 지속된 문학의 예술성을 높이기 위한 움직임이다. 1954년부터 도식주의적 편향을 극복하기 위한 미학적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었고, 특히 1956년 10월에 열린 제2차 조선작가대회에서는 문학창작에 대한 지나친 행정적 간섭을 극복하고 도식주의를 퇴치하기 위한 토론이 열기를 띠고 벌어졌다. 이를테면 작가대회 기간의 토론에서는 “문학의 특수성을 거세한 일부 그릇된 행정적 논단이나 지나친 간섭의 조치는 작가의 개성과 대담성을 삭감시키고 소심한 데로 몰고 가는 하나의 좋지 못한 ‘방조’가 된다.”⁷⁾고 하면서, 그로 말미암아 문학인이라는 “어진 시슴은 사방에서 들려오는 호통소리에 쫓기다 보니 매양 울가미를 매기 마련이었다.”⁸⁾고 지적하였다. 특히 문학의 예술적 수준을 높이는 데 가장 큰 방해로 되는 것이 도식주의라 하면서 “문학에 있어서의 당성 문제도, 전형성 문제도 모두 작품에 생활의 진실이 잘 반영 되었는가 잘못 반영 되었는가 하는 예술적 형상에 종속”된다 하였고 “작품들이 따분하고 저조하며 유형적이며 도식적이라는 독자들의 항의는 정당”하며 “그런 결함들은 현실을 반영함에 있어서 자기의 독자적 법칙을 소유하고 있는 문학예술의 특수성에 대한 …홀시와 무지에서 유래하는 것”이라 하였다. 그리고 “문학예술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정치적 명제와 문

7) 『제2차조선작가대회문헌집』,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6, 296쪽.

8) 위의 책, 80쪽.

학의 주제를 직접적으로 동일시하며 작품의 슈제트와 주인공의 운명을 정치적 구호로 도해하는 그런 도식주의를 다시는 허용해서는 안 되겠다.”고 하였다.⁹⁾ 물론 전후 북한 문단에서는 선후로 임화, 이태준, 김남천 등의 문학에 대한 비판과 홍순철, 한효 등의 독단주의에 대한 비판 그리고 안막, 서만일, 윤두현 등의 부르주아 유미주의 미학사상에 대한 비판 등 여러 차례의 사상투쟁이 벌어졌다. 그러나 사상투쟁이 자주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문단의 자주적인 움직임이 강했다는 것을 반증해준다. 다시 말하면 전후 북한 문단은 경직되지 않고 상당히 활력적이었다. 이에 힘입어 문학창작이 활기를 띠고 개화 발전할 수 있었다. 이 시기에 사실주의 원칙이 충실하게 지켜진 작품들과 다양한 문학적 풍격, 독특한 작가적 개성을 잘 보여주는 작품들, 그리고 북한과 한국에서 보편적인 미감으로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작품들이 많이 나온 현상이 그것을 잘 말해준다.

Ⅲ. 사회주의시대 농민의 이중성격에 대한 사실적 묘사 — 소설 「나비」, 「봄보리」를 중심으로

1953년 휴전협정 체결 후 북한은 자기의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하면서 전국 인민이 전후 복구건설에 매진하였다. 북한은 전국 인민의 지지 하에 전쟁에서 파괴된 경제를 복구하고 새롭게 건설하는 방대한 사업을 전개함과 동시에 전후 복구건설을 거쳐 본격적인 사회주의 건설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다. 즉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 개조가 도시와 농촌에서 진행된 것이다.

북한은 농업협동화를 실시하면서도 기본적으로 “자원성의 원칙”을 고수했다. 농업협동화과정에서 농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 농

9) 위의 책, 43쪽-44쪽.

민에게 실물교육을 통해 협동경리의 우월성을 보여주는 방법을 사용했다. 이를 위해 초기에 협동화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빈농들을 중심으로 매 군마다 2~3개씩 협동조합을 조직하고, 어느 정도 경험을 쌓은 다음 협동화운동을 대중적으로 발전시켜 나아갔던 것이다. 이와 동시에 빈농에 튼튼히 의거하고 중농과의 동맹을 강화하여 부농을 제한하며 점차적으로 개조한다는 계급정책을 실시했다. 부농이 0.6%밖에 안 되었고, 구 소련과 중국처럼 그들의 반대도 격렬하지 않았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수탈하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었다.¹⁰⁾ 그리하여 1958년 8월에 이르러 북한에서는 협동조합이 이루어지고 상공업자들에 대한 사회주의적 개조를 끝냄으로써 사회주의 제도가 확립되었다. 이런 사회적 환경 속에서 문학은 사회주의 농업협동화를 다룬 작품들이 많이 나타났다.

전재경의 「나비」¹¹⁾는 사회주의 농업협동화를 다룬 작품으로서 가장 희극적인 조우를 맞은 작품이다. 「나비」는 사회주의 농업협동화를 다룬 여타의 작품과는 달리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주의적인 고영수라는 부정적인 인물을 주인공으로 내세웠다. 고영수는 잔머리를 굴려 직권을 남용하여 조합 재산을 자신의 소유로 만들어 버렸다. 뿐만 아니라 아내와 양녀의 고혈까지 빨아먹는 기생충이며 사람들을 식은 죽 먹기로 속여먹는 알건달이다. 고영수의 죄행을 알게 된 마을사람들은 고영수를 조소하고 증오한다. 분개한 조합원들은 법대로 그를 처벌할 것을 요구하고, 그 결과 조직에서는 고영수를 노동으로 교육하게 된다. 하지만 고영수는 꾀병을 부리며 순순히 응하지 않는다. 조직에서는 은밀하게 고영수를 인도하여 끝내는 일 밭에서 모집을 나르는 일을 하게 한다. 작가가 고영수라는 개인주의적 인식에 빠져있는 인물을 주인공으로 부각한 것은 사회주의 농업협동화과정에서 부딪친 곤란을 표현하고 아울러 사회주의 건설시기의 농민의 또 다른 내면세계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 고영수의 입을

10) 김호웅·정문권·김관웅, 『북한 문화와 문학의 역사적 이해』, 창과현, 2004, 126쪽.

11)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6년 10월호.

통해 한 말이나 고영수의 내면세계에 대한 묘사는 사회주의 개조를 완성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었고, 또 발생했던 사회의 진실한 면모를 보여준 것이지 결코 작가가 고영수라는 인물형상에 동조하거나 고영수의 입을 빌어서 사회제도자체를 비방하려 했던 것은 아니다.

그는 다시 생각하였다. 앞으로 조선이 사회주의로 갈려면 가고, 공산주의로 갈려면 가라. 어차피 그 길로 나가는 수 밖에 없을 테니. 다만 자기는 그 길이 무엇이던간에 그것을 적극 찬성하고, 선봉을 서 나가면서 바짝 달려부터 제속만 차리면 그만인 아닌가. 협동 조합이 되어도 그것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간부는 있을 것이요 그들은 일반 조합원과 같이 노동은 하지 않을 것이니 간부만 한 자리 벌면 그만인 아닌가.¹²⁾

그러나, 고영수의 부정성은 남들에게 숨겨진 은밀한 것이 아니라 이미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다. 고영수를 제외한 모든 등장인물은 그가 당과 국가의 이상에 해를 끼침으로써 조합원들에게도 고충을 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래서 그의 부정성은 더 큰 위험을 불러오는 잠재적인 원인이라기 보다는 교정해야 할 대상으로 처음부터 설정된다. 소설은 조합과 당, 국가가 고영수의 부정성을 확인하는 것에 시작한다. 소설의 전반부는 고영수의 부정성을 묘사하는 데 집중하고, 후반부는 조합이 고영수를 교정하는 과정을 그린다. 이 소설은 개인의 부정성과 조합, 당, 국가의 이상 사이에서 발생하는 긴장, 갈등을 사실적으로 묘사한다.¹³⁾

농민들은 고영수가 개변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합에서 축출하고 법에 의해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합의 부위원장은 조선 노동당 3차 대회에서 채택된 당의 지침을 근거로 들면서 농민들을 설득한다. 따라서 설득의 대상은 갈등의 두 주체 모두이다. 손목을 잡고 이끌어 나가야 할 고영수, 그리고 이미 의식의 변화를 일으킨 조합원 농

12) 전재경, 「나비」,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6년 11월호, 85쪽.

13) 조명기, 「1956년 북한소설-「나비」, 「방임하지 말아야 한다」를 중심으로」, 『문창어문논집』 제14집, 문창어문학회, 2004, 331쪽.

민 모두를 조합(당)이 교화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조합(당)은 고영수가 훼손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 고영수로서는 도저히 훼손할 수 없는 지위와 층위의 존재가 된다. 비록, 고영수의 교정은 전적으로 자신의 결심에 의존하게 되며, 고영수에 대한 조합원의 의구심은 조합(당)에 대한 의구심이 되어 버리고, 고영수의 교정 여부는 농민의 당에 대한 신뢰 여부를 결정하는 잣대가 되지만,¹⁴⁾ 조합(당)의 성공은 당과 국가의 완전무결함을 증명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이로 인해, 조합(당)에 대한 어떠한 의심이나 불신도 존재할 수 없게 된다. 고영수처럼 조합(당)의 이상을 훼손하려는 반동적인 의식이나 행위도 농민들처럼 반동의 교정 능력에 대한 어떠한 불신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좋은 것과 더 좋은 것의 대결에서 더 좋은 것의 승리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고영수의 교정은 조합(당)의 포용력과 교화 능력에 기대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을 밟는다.

부정적인 개인이 이상적인 공산주의적 인간상으로 교화되는 과정을 유기적으로 그리지는 못했지만, 부정적 개인의 위악성을 구체적으로 재현하면서, 교정 과정을 통해 부정적 인물과 긍정적 인물 모두를 더욱 고양된 층위로 교화해가는 모습을 재현함으로써 개인·조합(당)의 긴장,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나비」는 짧은 시간 내에 극찬을 받았다가 또 엄중하게 비판을 받은 희극적인 조우를 맞았는데, 찬반양론사이의 모순이 바로 부정적인 인물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데 대한 부동한 시각이었다.

엄호석은 “「나비」의 예술적 공적은 고영수의 부정적 경향 즉 개인이 기주의 발현을 대담하게 폭로하고 그의 성격과 운명의 발전을 사실주의적으로 추구함으로써 그의 내부적 갈등을 심화하고 따라서 그의 개변과정을 예리화 하였다는 데 있다. 작가의 기본적 지향은 고영수와 같은 심한 개인이기주의조차 자기의 병집을 고치고 조합으로 들어오지 않을수

14) 위의 논문, 336쪽.

없으리만큼 농업협동조합의 우월성과 사회주의적 노력의 위력이 우리 농촌에서 현저하게 장성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비」는 고영수를 비판하는 거기에 전적으로 바쳐졌으나 그 비판의 힘이 긍정적 빠포스와 내부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즉 고영수를 비판하는 채찍을 친 작가의 비판적 빠포스 속에 숨은 우리 농촌의 사회주의적 역량이다.”¹⁵⁾라고 하면서, 「나비」를 도식주의를 극복한 작품으로 평가했다. 김형교도 “작가는 부정적 주인공 고영수를 때로는 거드랑이에 끼안아 그의 체중을 달아보기도 하고 때로는 구두발로 그의 머리를 짓밟아보는가 하면 또 때로는 높은 다락같은 데 올려놓고 그의 전모를 바라보면서 그의 검은 배속을 엿보기도 하는데 이렇게 하는 작가의 심리적 추구와 비판적 빠포스의 작용으로 하여 그것이 비록 풍자적 갈등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독자들로 하여금 고영수에게 조소를 퍼붓게 하며, 주인공의 야비하고 위선적인 개성을 회화적으로 과장함이 없이 그의 병집을 뚜렷하게 나타내어 독자들이 것처럼 가증스럽게 여기는 데 공감을 가지게 하였다.”¹⁶⁾라고 하면서, 부정적 형상의 계급적, 사회적 본질을 진실하게 그려내었다고 평가하였다.

이와는 반대로 한설야와 한중모는 이 작품을 강렬하게 비판하였다. 한설야는 “소설 「나비」에 나오는 고영수의 입을 통하여 전재경은 우리 당과 우리 제도에 대한 비방과 중상을 것처럼 퍼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분노와 경각심보다도 개성화된 인간형상을 그려냈다는 것으로서 도리어 이것을 성과작으로 추켜세우는 일부 사람들까지 있었습니다.”¹⁷⁾라고 하였고, 한중모는 “단편 「나비」에서 전재경은 일관해서 해방

15) 김재용, 『북한 문학의 역사적 이해』 문학과지성사, 1994;

엄호석, 「해방후 산문발전의 길」, 『해방후 우리 문학』,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8, 27쪽에서 재인용.

16) 김형교, 「비판적빠포스」, 『문학신문』,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1957. 1. 3.

17) 한설야, 「공산주의 교양과 우리 문학의 당면 과업」, 『공산주의 교양과 창작문제』,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9, 297쪽.

후 북한 인민의 생활을 외곡해서 묘사하면서 당의 정책과 사회주의제도에 대한 불신임의 감정을 인민들 속에 부식시킬 것을 주요하게 목적하였다.”¹⁸⁾라고 비판했다.

「나비」는 당시 소설 분야에서 가장 쟁점을 불러일으켰던 작품이며 그만큼 작품에서는 사회주의 개조과정에서 나타난 농민들이 지닌 보수성을 극복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 작품이다. 작자는 개인적인 이익에 집착하여 협동조합에 들어가지 않는 부정적 인물이 지니고 있는 내적인 모습을 파헤치는 데 진력하였다. 그렇다고 해서 결코 부정적 인물을 지지하거나 옹호해서가 아니라 부정적 인물의 성격을 성격발전의 논리에 맞게 그리기 위한 것이었다. 아울러 이러한 인물 형상을 통해서 사회주의 개조과정에서 나타난 농민의 부동한 성격적 특징에 대하여 부동한 측면에서 조명하였다.

강형구의 「봄보리」¹⁹⁾도 역시 사회주의 농업협동화를 다룬 작품이다. 주인공 군칠이는 작업반장으로서 노동에 대한 사회주의적 태도를 구현하고 있는 긍정적인 인물이다. 그는 “봄보리 이모작”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여 나서며 반원들의 선두에 서서 자연재해를 극복하고 반대자들을 물리치면서 드디어 성공한다. 갖 파종한 봄보리가 썩어버릴 위험에 직면하게 되자 조합원들은 자진해서 비 내리는 야밤에 작업도구들을 갖추고 관리부 사무실로 모여들며 저마다 논으로 나갈 것을 자원해 나선다. 조합원들의 단합된 노력은 봄보리를 자연재해의 위협으로부터 구원해낸다. 이런 이야기를 통하여 작가가 보여주고자 한 것은 농민들의 개변된 의식과 그들의 집단 노력의 힘이었다. 또 다른 주인공 덕원이는 선진적인 영농기술의 보급을 가로막아보려는 부정적 인물로 등장한다. 고립된 그는 불평, 불만을 늘어놓으면서 새 기술을 보급하려고 애쓰는 군칠이를 질투하고 비난한다. 자연재해의 위험이 닥치자 그는 쾌재를 부르며 “봄보리

18) 한중모, 「소설분야에서의 부르주아사상의 표현을 반대하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9년 4월호, 140쪽.

19)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7년 5월호.

이모작”이 파탄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하지만 그는 결코 이러한 반항정신을 실제행동에 옮겨 정면으로 맞다들지는 않는다. 이렇게 군칠이와 덕원이는 농촌의 사회주의적 개조 즉 사회주의 농업협동화를 실현해나가는 과정에서 서로 반대되는 두 극의 대표인물이다.

「봄보리」는 봄보리의 싹이 나오느냐 마느냐 하는 아주 사소한 사건의 전개를 둘러싸고, 새로운 것과 낡은 것 간의 모순을 폭로하고 협동경리의 우월성과 농촌의 사회주의적 개조의 결정적 승리를 확인하려고 시도했다. 확실히 농업의 사회주의 개조를 실현함에 있어서 군칠이와 같이 적극적인 자세로 농업협동화를 지지하는 인물이 있는가 하면 덕원이처럼 소극적인 자세로 망설이면서 농업협동화를 저애하는 인물도 있다.

사실 군칠이는 나라나 조합 결정을 몸으로 받든다. 그의 말마따나 그렇게 해서 좋지 않은 일이 없었다. 그런데 덕원이의 마음은 그렇지 못했다. 그는 망설이고 저울질을 한다. 그러는 동안 조합은 그를 비껴 놓고 앞으로 나간다. 나가는 과정에서 때로는 실패도 있다. 덕원이는 그 실패가 대단히 확대되어 보이고 그것이 자기 말을 듣지 않아 생긴 것만 같아 많은 일이 못마땅했다. 더군다나 전에 남을 속이고 감아먹는 것이 한 《능력》으로 간주되던 때에 자기한테 속아 넘어가던 군칠이가 지금 작업반장으로 있으면서 일을 미련하게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것은 또 덕원으로 하여금 전일의 자기 《수완》이 그리워 가끔 옛날 이야기를 펼치게 한다.²⁰⁾

물론 이런 덕원이가 안 나올 줄로만 알았던 봄보리 싹이 나온 까닭으로 당장 성격이 개변되는 것은 성격발전의 논리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써 작품의 예술적 감화력을 약화시킨다. 덕원이의 성격은 웅당 보다 첨예화한 모순갈등 속에서 발전해야 했다. 덕원이라는 부정적 인물과 군칠이라는 긍정적 인물사이의 모순과 충돌을 자연재해를 여하히 극복해나가는가 하는 구체적인 사건 속에서 생동하게 묘사함으로써 덕원이의

20) 강형구, 「봄보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7년 5월호, 42쪽.

의식세계의 변화과정을 그려내야 한다. 하지만 작품은 갈등을 단순화하고 인물형상을 선명하게 부각하지 못한 아쉬움을 남긴다. 그러나 덕원의 낙후한 의식세계가 사회주의 개조가운데서 농업협동화를 반대하던 일부 농민의 정신세계를 집약적으로 표현한 것만은 확실하다.

「나비」의 고영수나 「봄보리」의 덕원과 같은 인물은 사회주의체제의 북한이 사회주의 개조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부딪쳤던 곤란을 단적으로 보여주었으며, 사회주의 농업협동화과정에서 농민의 성격에 대하여 새롭게 해석했다. 이것은 1950년대 말 사회주의 개조가 바야흐로 완성되고 사회주의 제도가 확립되던 북한의 사회현실에서 당연히 민감한 이슈였다. 농업협동화를 주제로 한 이 시기 많은 소설들이 그러했듯이 무엇보다도 협동조합 가입 문제를 놓고 농민들 속에서 나타난 보수성과 완고성을 어떻게 극복해나가는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점이었다. 또한 협동조합에 가입한 일부 조합원들 속에서 나타나는 주인답지 못한 현상, 소소유자적 근성, 개인이기주의가 어떻게 극복되고 사상적으로 개조되어 나가는가 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였다. 문학의 이런 상황은 사회주의 개조과정에서 농민에 대한 개조의 어려움을 여실히 반영하고 있다.

IV. 나오면서

북한의 1950년대 후반기는 북한의 역사에서 전쟁의 상흔으로 말미암아 경제적, 생활적으로 가장 어려웠던 때였으면서도, 북한의 정치, 문학적으로는 가장 역동적인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²¹⁾ 전쟁 후 북한의 주민들은 전쟁의 폐허 위에서 다시 일어서기 위해 전후복구 건설에 떨쳐나섰다. “모든 것은 민주기지 강화를 위한 전후 인민경제 복구발전으로!”

21) 김호웅·정문권·김관웅, 『북한 문화와 문학의 역사적 이해』, 창과현, 2004, 123쪽.

라는 구호가 당시의 상황을 잘 말해준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따라 작가 예술가들이 전후복구 건설에 적극 동참할 것이 필요했다. 전쟁 후 북한에서는 전후복구 건설을 통하여 주민들의 물질생활이 향상을 가져왔다. 이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북한 문단은 사회주의체제 국가에서 나타난 사상해방운동과 조선 제2차 작가대회를 계기로 하여 문학의 개화기를 맞이하였다.

1956년 10월에 열린 제2차 작가대회에서 제기된 문제의 하나가 반동적 문화조류를 청산하고 항일혁명문학의 유산을 계승하는 문제였다. 이것은 임화, 이태준, 김남천 등 부르주아적이며 허무주의적 경향이 남긴 영향력을 제거하고 남로당계열에서 제대로 평가되지 않았던 1930년대 김일성을 비롯한 항일무장투쟁 속의 혁명문학을 계승하는 문제였다. 결국 이런 과정에서 “항일 무장 투쟁 속에서 발생, 발전한 혁명적 문학유산”이 당의 사상사업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 자리 잡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주된 문학경향의 수면 밑에서는 도식주의에 대한 비판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졌다.

1950년대 후반기 북한 문단의 소위 주류 소설들 중에도 천세봉의 장편소설 「석개울의 새봄」과 같이 현실의 사회적 변혁을 반영하면서,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문제와 그에 관련된 인간상을 그린 소설이 있다. 「석개울의 새봄」은 농촌에서의 사회주의 개조 즉 협동화과정을 빈농, 중농, 지주, 적대분자 등 각각 다른 계급과 계층을 대표하는 여러 인물들의 전형적 형상을 통하여 사실주의적으로 일반화 하고 있다.²²⁾ 전재경의 「나비」, 강형구의 「봄보리」도 모두 농촌의 사회주의 개조와 농업 협동화과정에서 나타난 사실을 반영하면서 각기 다른 전형적인 인물형상을 창조하였다. 그러나 「석개울의 새봄」과 달리 이런 “문제”소설에서 주목되는 형상은 주인공이 부정적 인물로서의 농민의 형상이라는 점이다. 「석개울의 새봄」에서 주인공 창혁이는 전후 농촌경리의 사회주의적

22) 위의 책, 157~175쪽.

개조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쳐 헌신적으로 투쟁하는 농촌일군들의 정치사상적 풍모와 전형적인 성격을 집중적으로 구현한 형상이다. 그러나 「나비」의 주인공 고영수는 이와 정반대로 조합에 가입하기마저 꺼려하고 가입한 후에도 항상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지 못하는 부정적 인물의 형상이다. 이 두 소설은 긍정적 인물과 부정적 인물이라는 완전히 부동한 인물을 주인공으로 설정하여 그들의 성격발전논리에 따라 사실주의적으로 농업협동화과정을 묘사하였다. 이는 사회주의 개조와 농업협동화과정에서 나타난 각이한 인물형상에 대한 여실한 반영으로 되고 있다. 이처럼 “문제”소설로 비판받았던 소설들은 현실의 진실을 반영하기에 노력하면서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문제성과 그에 관련된 인간상을 그린 점에서 주도적인 경향을 이룬 작품들과 차이를 보인다. 다시 말하면 “문제”소설로 비판받았던 이유가 바로 “문제”소설의 치중점이 이런 소설들과 다르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것이 곧 “문제”소설의 문학적 가치로 된다.

1950년대 말 북한 문단에서 “문제”소설의 창작이 활발했던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며 당시 사회문화적 환경의 필연적인 산물이다. 사회주의 시조인 구소련에서 시작된 “무갈등론”과 개념화, 도식화에 대한 비판은 중국과 북한을 포함한 모든 사회주의체제 국가에 큰 영향을 미친 한 차례 사상해방운동이다.

스탈린주의에 대한 비판은 “개인숭배”에 대한 비판이며 현실생활을 반영함에 있어서 개념화와 도식화를 극복하게 하였다. “진실을 쓰자”, “생활을 적극적으로 관여하자”는 구호 밑에 문학창작의 인물형상 부각 문제, 인간성 문제, 인도주의 문제와 사회주의 사실주의 기본창작방법 문제가 활발하게 논의되었다.

북한의 전후복구건설 시기는 생산현장의 사건을 다루고 인물을 부각시킨 작품들의 기록주의와 도식주의에 대하여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던 때인지라 특히 구소련의 영향을 강력하게 받았는데, 제2차 작가대회

를 계기로 도식주의와 기록주의에 대한 비판이 더욱 강렬했다. 이는 1950년대 북한 문단에 잠시나마 해빙기가 도래하게 했으며 이것은 “문제”소설의 창작에 가장 중요한 원인과 조건을 제공해주었다. 때문에 “문제”소설은 1950년 북한 문학사 중에서의 소설 창작의 중요한 한 부분이다.

“문제”소설들은 북한의 1950년대 문학발전사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만큼 응당 정확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우리는 이런 작품들의 장점과 결점에 대하여 올바른 평가를 하여야 한다. 문예정책이거나 이데올로기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문학작품을 평가할 때만이 그 문학작품의 진정한 가치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 전재경, 「나비」,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6. 11.
강형구, 「봄보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7. 5.
「생활의 진실을 더 깊이 반영하기 위하여」, 『문학신문』, 조선작가동맹중앙위원회 기관지, 1957. 11. 28.
조중곤, 「생활의 진실을 더 깊이 반영하기 위하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8. 1.
계북, 「새로운 높이를 지향하는 길에서」,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8. 2.
한중모, 「소설분야에서의 부르조아사상의 표현을 반대하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9. 4.
김형교, 「비판적 빠포스」, 『문학신문』,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1957. 1. 3.

2. 저서 및 논문

- 조명기, 「1956년 북한소설-「나비」, 「방임하지 말아야 한다」를 중심으로」, 『문창어문논집』 제14집, 문창어문학회, 2004.
『조선문학사』(10-15), 사회과학출판사, 1994.
『조선작가대회문헌집』,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6.
김재용, 『북한문학의 역사적 이해』, 문학과지성사, 1994.
김윤식, 『북한문학사론』, 새미, 1995.
권영민, 『북한의 문학』, 공보처, 1996.
한국문학연구회, 『1950년대 남북한문학』, 평민사, 1991.
김춘선, 『조선-한국당대문학개론』, 민족출판사, 2009.

김병민 외, 『조선-한국당대문학사』, 연변대학출판사, 2000.

김호웅 외, 『북한 문화와 문학의 역사적 이해』, 창과현, 2004.

<论文摘要>

1950年代北韩“问题”小说中的农民形象研究
- 以《蝴蝶》、《春麦》为中心

金 美

本文通过1950年代在北韩文坛上被批判为“问题”小说、从而被文学史所遗弃的小说中的农民形象研究,来探究这类小说的文学价值,澄清其在文学史上的地位。战后北韩文学在初期受到党的路线和文艺政策的影响,但并非完全地被束缚住,至少在1967年“主体文学”形成之前有过一段为自主意识和文学性的守护而进行的痛苦挣扎。“问题”小说所创造的农民形象不仅有力地证实了北韩文学内部对文学本源的追求,而且有力地反驳了把战后的北韩文学千篇一律地视为“主体文学”的偏见。

关键词:“问题”小说,“问题”,公式化,思想解放运动,农民形象。

■ 논문접수 : 2012년 3월 15일

■ 심사완료 : 2012년 3월 31일

■ 게재확정 : 2012년 4월 10일